

## 체육특기자의 대학생화에 대한 또래 대학생의 인식 이해

### Understanding Peer Students' Perception of College Lives of Student-Athletes

김상우 · 유정애\* · 조용인(중앙대학교)

Klm, Sang-Woo · You, JeongAe\* · Cho, Yong-In(Chung-Ang Univ.)

**요약** 2017년 입학자부터 모든 체육특기자들은 각종 시험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C제로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학엘리트스포츠 정책변화는 우리나라 체육특기자의 대학생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특기자와 강의를 함께 수강하는 또래대학생 4명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의 대학생화를 이해하는데 있다. 심층면담과 비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radley(1980)의 의미론적 관계 조사에 의한 영역 분석과 분류체계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체육특기자들은 또래대학생과 '보이지 않는 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강의실에서 방황하며 학업 태도와 관계없이 호화스런 학점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체육특기자들은 특이한 진로 변경에 대해 고민하며 자아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체육특기자들의 학업과 여가시간의 확보를 위해 대학관계자의 공조가 필요하며, 동시에 입학 후 운동을 중단하는 체육특기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대학특기자, 또래 대학생, 학업 생활

**Abstract** Since in 2017, all student athletes in college level who want to attend a university match should get above C zero credit. The changed policy in university sports has greatly impacted on the entire lives of college student athletes in Korea.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llege life of student-athletes with the eyes of 4 peer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taken all courses.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non-participation observations, necessary data are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based on the domain analysis and classification analysis proposed by Spradley (1980). Therefore, university student-athletes have lived in invisible wall that is apart from peer students, are wandering in many classes, and are received high credit without any efforts. Meanwhile, because the student-athletes are concerned about their future career, they have troubled about their identities. In a sense, this paper has proposed two things such as collaborative relations among university people and various services in educating many student-athletes who quitted the positions as athletes.

**Key words:** University student-athletes, Peer student, Academic life

\* jayou@cau.ac.kr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8067020).

## I. 서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2016)는 2017년부터 학점 평균이 C제로 미달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로 인해 전국의 체육계열 대학의 모습은 과거와 다른 대학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대학 체육특기자들은 오전은 수업시간, 오후는 훈련시간으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여 왔으며, 늦게까지 진행되는 운동 훈련은 다음날 오전 수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지만 심신의 피로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동현, 2011). 또한 주중 훈련은 오후, 새벽, 야간 순으로 훈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주말 훈련의 경우 오후, 오전, 새벽, 야간 순으로 훈련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정책평가연구원, 2014). 체육특기자들은 수업시간표가 아닌 훈련시간표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의식주와 관련된 활동을 제외하고 대부분 운동으로 시작하여 운동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류태호, 이주욱, 2004).

김동현(201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체육특기자들은 자신의 대학에서 규정된 학칙 외에 또 다른 규칙에 따라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 체육특기자들은 훈련에 따른 피로, 단절된 교우관계 그리고 운동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대학의 강의실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공간이 아닌 어색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석부에 체육특기자라는 표시를 통해 일반학생과 또 다른 분류로 구분되고, 체육특기자들은 전혀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중간 이상의 성적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평가되어져야 할 학업 성적은 오히려 체육특기자의 경기실적에 따라 평가되어 왔다. 그 결과 체육특기자들은 자의적 뿐만 아니라 타의적으로도 학업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류태호, 이주욱, 2004). 운동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신념으로 학업보다도 훈련에 매진한 체육특기자들의 대학생활은 또래 대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수업 이외의 다양한 학과 행사나 대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삶에 주체적으로 참

여할 기회나 명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체육특기자 학생은 일반 학생들과의 관계 맺을 시간(훈련스케줄)과 공간(합숙소)이 한정되면서 대학에서의 '수업의 의미'는 '배움의 의미'보다 체육특기자 외의 친구(또래대학생)를 사귀어 수 있는 교제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완, 임용석, 이승훈, 2009). 실제로 체육특기자들은 운동을 중단하였을 때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받을 수 있는 인맥으로서 또래대학생과의 교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육특기자들은 교우관계를 형성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고, 이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불확실한 혹은 불안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력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수단화된 관계 형성 마인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육특기생의 대학생활에는 수업시간 외에 동료들과의 교류, 사회성 함양, 사회적 기능의 학습 등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학과 행사나 대학축제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습권이 배제되어 있었다(곽은창, 김용규, 주병하, 2011; 류태호, 이주욱, 2004). 체육특기자들은 '운동'으로 인해 자율적 존재가 아닌 지도자, 부모와 교사 및 교수의 교육적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결정에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김동현, 2011).

또한 체육특기자들의 경우 훈련 이외의 주중 1일 평균 여가시간은 316.70분이었으며, 여가시간에 대학 체육특기자들은 주로 인터넷 검색(152명, 31.8%), 컴퓨터 게임(109명, 22.8%), 친구만나기(49명, 10.3%), 휴식(36명, 7.5%), 수면(33명, 6.9%)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욱진, 2010). 체육특기자들은 평일과 주말 모두 훈련스케줄이 잡혀있으며, 따로 여가시간이나 자기계발 할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조금의 여가 시간이 있더라도 잠을 자거나 아니면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을 즐기는데 여가의 대부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학준, 2008).

우리나라에서 대학체육특기자의 학교생활을 논의한 연구(구창모, 2010; 김동현, 2011; 류태호, 이주욱, 2004; 이학준, 2008.; 신영균, 2010; 신현균, 이학준, 2004; 이

옥진, 2010; 이혁기, 임수원, 2010; 임용석, 류태호, 2014)는 매우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선행 연구들은 대학체육특기자들의 대학생활이 또래대학생들과 크게 다름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대학 체육특기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기반으로 대학 체육특기자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탐색하였다. 실제로 체육특기자들의 내면적인 목소리를 통해 살아있는 일상을 파악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학술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체육특기자들의 학업생활, 여가생활, 교육관계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육특기자들뿐만 아니라 주요타자들(significant others)의 인식을 통한 탐색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 체육특기자들과 동시기에 동일한 대학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또래대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대학 체육특기자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또래대학생의 인식을 통해 파악된 학술적 정보는 우리나라 대학 체육특기자들의 학교생활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 또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체육특기자의 대학생활에 대한 또래대학생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체육특기생과 비슷한 연령대에 위치하고 있는 또래대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대학 체육특기자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향후 대학스포츠정책, 엘리트체육정책 및 대학교육정책 등을 수립하고 학교체육진흥법 등과 같은 법을 개정할 때 객관적인 학술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본 글의 연구참여자(총 4명)는 C대학교 축구부, 농구

부, 야구부 소속의 체육특기자 신입생들과 함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동기생들이다. 4명의 연구참여자들(박○○, 김○○, 한○○, 이○○) 중 1명은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소속 1학년이며, 나머지 3명은 모두 체육대학 소속 대학생 1학년이다. 체육특기자 신입생들과 동일한 년도에 C대학에 입학하여 교양강의, 교직강의 및 전공강의를 함께 듣고 있다. C대학교는 서울특별시와 ○○○도 ○○○시에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4년제 사립 종합대학으로, 단체인 동부와 다수의 개인종목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이 대학은 단체인동부를 위한 기숙사와 체육관 및 운동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개인종목 체육특기자들은 운동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모두 외부에서 개별 훈련에 임하고 있다. C대학의 체육특기자 중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소속 체육특기자들은 서울캠퍼스에서 체육교육학과 학부생뿐만 아니라 사범대학소속 학부생들과 교직강의와 교양강의를 함께 수강하고 있다. 반면 체육대학소속 체육특기자들은 축구, 농구, 야구 특기자 학생들로만 구성된 교양수업과 전공수업을 함께 수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소속 체육특기자는 서울과 지방을 오고 가며 강의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체육대학소속 체육특기자는 강의와 훈련공간이 모두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2. 자료수집

본 글은 우리나라 체육특기자의 대학생활에 대한 또래대학생의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담과 비참여관찰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4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1인당 2회에 걸쳐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신입생들이 가능한 요일과 시간, 장소를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과 심층 면담 전 방문,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라포(rapport)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면담 시간은 1회 면담기준 약 60분-90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가급적 연구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되었다.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선행연

구(김동현, 2011; 류태호, 이주욱, 2004; 이혁기, 임수원, 2010)에서 제시한 질문지를 토대로 수정보안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 면담내용을 녹취하여 연구자료로 사용하였고, 연구자가 작성할 연구노트와 메모를 함께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강의 시간을 확보하여 4회의 비참여관찰을 실행하였다. 비참여관찰은 관찰노트(field note)를 활용하여 강의 중에 나타나는 연구참여자와 체육특기자간의 상호작용 등을 기록하였다.

### 3. 자료분석 및 자료의 진실성

수집된 자료는 Spradley(1980)의 의미론적 관계 조사에 의한 영역 분석과 분류체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전사 자료 또는 비참여 관찰을 통해 작성된 관찰 노트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숙독하였다. 그런 다음 유의미한 사항에 대해 밑줄을 그어 자료를 범주화시킴으로써 영역분석을 수행하였다. 범주화한 자료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주제를 대상으로 여백에 적절한 표현(명사 또는 형용사)으로 기록한 후 하위 영역을 구성하였다. 그런다음 영역 분석을 통해 선정된 하위영역들을 계속적으로 비교하여 보다 포괄적인 영역을 도출해내고 이렇게 도출된 영역을 다시 비교한 후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료간 협의와 구성원간 검토 방법을 활용하였다. 스포츠교육학 교수 1명과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졸업생 2명과 동료간 협의(peer debriefing)를 실시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동시에 4명의 연구 참여자와 함께 연구 결과해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ing)작업을 실시하여 자료의 진실성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보이지 않는 벽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일반학생과 체육특기자 신입생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다. 수시로 입학한 체육특기자와 정시로 입학한 일반학생은 입학시험도 다르고,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한 기억에도 차이가 있다. 4가지 운동시간(예: 새벽운동, 오전운동, 오후운동, 야간운동)을 열심히 뛰며 대회의 입상성적을 거둔 체육특기자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능시험과 입시실기를 준비한 일반학생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체육특기생이 아닌 학생 중에 저 혼자 수시인데요. 나머지는 정시고, 조금 그런걸 느껴요.. 조금 다른 것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혼자 소외된 느낌을 가졌어요.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저는 혼자 떨어진 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체육특기자인 ○○도 혼자 특기이니까 저희한테 그런 걸 느끼는 거 같아요.

또래대학생 박○○

지금 개인 특기생이랑 일반학생이 갈라지는데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거리가 사실 떨어져있죠. 체대 입시생이랑, 개인 특기생이랑, 단체 특기생이랑요. 체육특기생들은 몇 골 넣었는지 부터 이야기기 시작되고, 어떻게 경기해서 기록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는 그냥 입시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는 사실 기준부터 많이 다르죠..

또래대학생 김○○

처음부터 그냥 틀을 벌써 잡아버리니까, 단체 특기생이라고 딱 짜라 놓으니까, 저희가 다가가기 어려운 면이 있죠. 처음에 1학기때는...

또래대학생 김○○

일반적으로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1학년 동기들과 가장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주제가 대학교 입시실기에 관한

이야기이다. 정시로 입학한 일반학생과 수시로 입학한 체육특기자들이 경험한 입학시험이 서로 달라서 다름의 경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입학에 관련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체육특기생들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게 출석을 시험 때문에 많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요. 선수라서 수업을 많이 빠지게 되니까요. 그냥 대학을 다니는 목적 자체가 다르구나. 수업 듣는 목적이 출석인 것처럼 느껴지고, 운동이 중심인 것 같고 학교는 약간 부수적인 것 같아요.

또래대학생 한○○

체육특기자들과 또래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목적부터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다. 체육교육과 또래대학생의 경우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입학 목적을 가진 반면, 체육특기자 신입생의 입학 목적은 프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입학 목적을 가진다. 서로 다른 진로를 향해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래대학생과 체육특기자가 서로 보이지 않는 벽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업시간 이외에 저희는 자유시간 저녁에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같이 밥 먹고 밤에 저희끼리 놀고 그러는데요. 특기생들은 외박 같은 것도 겨우 받아서 서울 가서 놀다 옵니다. 주로 수업 끝나고 운동하고 방에 있다가 외박 받으면 서울 갔다오고 이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가 휴가 받으면 집에 다녀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처럼 술을 못 먹어요. 만약 금요일에 외박을 받으면 술 먹으러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또래대학생 김○○

또래대학생의 시간은 체육특기자와 비교할 때 훨씬 자유롭다. 수업 이외의 시간은 보통 자유 시간이다. 그러므로 수업 이외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즐긴다. 그러나 체육특기자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수업 시간이 유일하게 또래대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단순 강의식 수업이라면 사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팀 과제조차도 주로 체육특기자들끼리 하게 되면서 일반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행사에 참여하기도 힘들다. 체육특기자 신입생의 경우 오전 수업이 끝나면 바로 오후에 훈련이 있고 야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개인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유시간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말에 받는 외박 같은 경우도 극히 드물어서 일반학생과 교류하는데 시간을 쓰기 보다는 부모님이 계신 본가로 가거나, 평일에 마시지 못하는 술을 마시러 가는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2. 강의실에서의 방향

단체종목 체육특기자 신입생 중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 학생선수들은 서울에 위치한 캠퍼스에서 일반학생과 함께 ‘창의와 소통’ 교양수업을 수강한다.

연구자 : 체육특기자들의 수업참여는?

박○○ : 그냥 딱히 발표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 발표를 많이 유도하는 수업이었는데요. 강제적으로 팀원 중 한 명이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해야 하는데 토론은 참여해야 해서. 억지로 했었고, 자율적인 발표는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었어요.

연구자 : 왜 그랬을 것 같나요?

박○○ : 그냥 집중을 안 한 거 같아요. 집중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수업 중에 핸드폰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수업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도움이 안 되서 그런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박○○ : 그게... 조금 어려워요... 문학에 대해서 문학을 배우는 내용이었는데요. 솔직히 책을 안 읽어오면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책 내용을 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책을 안 읽어오니까 참여를 하기 어렵고 잘 모르니까 발표도 안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창의와 소통’의 수강생은 체육교육과 일반학생뿐만 아니라 사범대학 내 타전공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기 때문에 체육특기자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강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이 교양과목은 고전과 현대 명저를 읽고, 발표와 토론을 하는 수업이기에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반드시 미리 읽고 참여해야 한다.

■ 과목 설명(Course Description)
인간 삶의 주요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인류의 지적 전통 위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영의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적인 힘을 기른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타인과의 공감 능력 및 소통 능력을 기른다.
고전과 현대의 명저들을 넘나드는 대화과정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타인과 세계는 어떻게 이어져있는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것인가” “좋은 삶은 무엇일까?” 등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궁극적으로는 삶을 긍정적으로 변혁시킬 내면의 힘을 길러주고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의 내용이 될 텍스트는 노래-가을-출이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자신의 감격을 열어 감수성을 확장하는 과정(노래), 인간존재에 대한 내적 성찰을 해보며 행복과 자유에 대해 사유하는 과정(가을), 사회적 존재로서의 갈등과 문제해결의 과정(출)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마다 고전과 현대적 저작 그리고 영상자료 등 다양한 텍스트들이 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주제별로 3주의 시간이 배정되고, 4주에는 시의적인 주제를 도입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감상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연습을 한다. 또한 텍스트의 내용을 오늘날의 삶과 연결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정서적 공감능력을 기른다. 토론에서는 타인과 생각을 나누는 방법을 익히며 소통 능력과 균형감각을 함양시킨다.

그림 1. 창의와 소통 교양과목 소개

도래대학생 박○○가 언급한 내용대로 미리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온 체육특기자들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모르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체육특기생들은 지루한 수업의 도피처로 강의실 뒷자리로 옮겨 앉게 되고, 필기도구를 있어야 할 손에는 핸드폰만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2. 맨 뒷자리 지정석

위의 사례와 같이 학습의욕이 없는 이유는 진정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점을 받기 위해 강의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점을 받기 위해 억지로 참여하는 학업이 이들 체육특기자들에게 진정으로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우수 학생선수의 경우 대회를 출전하기 위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강의 참여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강의 내에서 참된 교육의 경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찾기는 어려웠다. 즉 공부의 목적이 공부 그 자체가 좋아서 하기 보다는 학점, 경기출전 요건과 같은 외적 요인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는 성적에 반영되는 요소에만 집중할 뿐 진정으로 공부하기 위한 학습의욕이나 수업 준비에 있어서 등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호화스러운 학점

체육특기자 신입생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바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 특히 농구는 대학리그의 경기 일정이 평일에 잡혀있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평일에도 수업을 마치고 시합을 준비한다. 타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업 후 훈련에 매진한다.

제가 듣기로는 축구, 농구, 야구는 일단 수업 끝난 뒤에는 항상 운동을 하고, 특히 축구는 아침 6시부터 운동장에 나와 가지고 조깅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보다는 힘든 건 확실히 맞아요. 훨씬 학교생활이나 공부하기 힘든데요, 학점은 교수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주세요, 특기생들을 더 챙겨 주시죠. 특기생들은 시합을 나가야되니까 학점이 안 나오면 시합에 못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애들을 다 챙겨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나가게 해주려고 학점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학점이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래대학생 김○○

현재 체육특기자 신입생이 학업과 운동을 바쁘고 힘들게 병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 및 교수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학점에 관해서는 체육특기자의 시합출전 자격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은 해당 학생에게 신경을 더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서 또래대학생들은 체육특기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즉 또래대학생들의 노력과 비교할 때 체육특기자 신입생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시합에 떨 수 있는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4. 특이한 진로 변경

C대학교에서는 농구 체육특기자 신입생으로 입학했지만, 1학년 입학 후 동계 훈련에서 부터 운동을 포기한 후 학업으로 진로를 전향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C대학에서는 이 체육특기자가 세간의 관심 대상으로 부상한 적이 있다. 이 농구특기생이 빠르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현 상황과 미래에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운동 잘하는 애는 잘하고요. 그 농구특기생은 진짜 공부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단체특기생 이량은 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배울게 훨씬 많은 거 같아요.

또래대학생 김○○

○○캠퍼스에 17학년 중에 벌써 농구 그만 둔 애가 있데요. 그 특기생이 학과 수석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뭐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래대학생 이○○

이 농구특기생은 또래대학생의 면담내용처럼 외로운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동시에 또래대학생에게는 경이로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 농구특기생의 공부 방식은 초·중·고등학교 때 운동했던 만큼 공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자에 비해 운동이 늘지 않아 스트레스

를 받은 적이 많았지만, 이 농구특기생은 공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강의중에 이 농구특기생은 운동한 만큼 공부에 노력을 투자하면 그 만큼의 성장이 극대화되어 배움의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오히려 이 농구특기생은 운동보다 공부가 훨씬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체육특기생이 운동에서 학업으로 빠르게 전향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이 농구특기생이 운동을 바로 그만두고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며 대학 생활에 완벽히 적응하는 모습에 대해 또래 대학생에게 적지 않은 과급력을 전파하고 있었다.

#### 5. 자아정체성 혼란

C대학에서는 3월 대학신입생의 학교생활 시작과 동시에 운동을 그만두고 빠르게 공부로 전향한 농구특기생과 다르게 1학기 중간쯤 운동을 그만두고, 학업으로 진로를 전향할 마음을 가진 체육특기자 신입생들도 있었다. 이 체육특기자들은 현재 학적상 체육특기자로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오후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를 운동선수가 아닌 길로 이미 인식한 이 체육특기자들은 오후 본 운동에 적극적인 훈련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한 결정이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의지가 없는 거죠. 아예 그만 둔다는 애들은 운동을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운동은 나중이고 공부가 먼저라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안 할꺼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운동에 의욕이 생길 수가 없지요.

또래대학생 민○○

또래대학생들은 빠른 진로결정을 한 농구특기생들을 보며, 다른 학번들보다 지금 신입생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려는 의식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 운동을 그만두려는 체육특기자 신입생은 또래대학생들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학과 선배들과 만남을 가지려는 노력을 기울

이고 있었다. 농구를 그만두고 학업으로 진로를 결정한 체육특기자들의 강의 참여 모습을 보면서 운동을 계속하려는 체육특기자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1학년 말에 그만두려는 체육특기자들은 자신이 학생인지 운동선수인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다. 아직 학적상 체육특기자이고 생활 측면에서도 기숙사에서 운동부와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체육특기자로서 오후 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공부로 전향하려는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생활이 체육특기자로서의 생활로 동일시되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IV. 논의

### 1. 학업시간과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대학 관계자들의 공조 필요

2016년까지는 이전에 해왔던 관행대로, 학칙에서 정한 출석기준에 미달한 체육특기자에게 출석인정 및 학점 부여를 해 온 대학이 많았다. 이 근거는 2017년 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점검 결과로 확인이 되었다. 이번 실태 점검으로 부실한 출석 및 학점부여를 한 대학은 총 16개 대학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대학들은 교육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교육부에서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수행된 실태점검에서 16개 대학이 주의를 받은 점은 체육특기자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대부분이 부실한 출결 관리를 해 온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는 기존의 관례가 순조롭게 통과될 수 없는 새로운 대학환경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한 체육특기자의 운동시간과 학업시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오전에는 수업, 오후에는 훈련으로 시간표를 배정하는 대학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김동현, 2011). 즉 전공교수, 감독 및 코치, 교무처 등의 대학관계자가 체육특기자의 학업을 위해 공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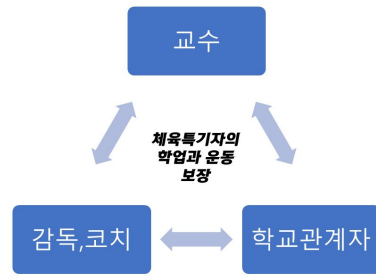


그림 3. 대학관계자들의 공조

또한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래대학생과 체육특기자는 서로 다른 규율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규율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육특기자 신입생의 경우 평일은 항상 훈련이 잡혀 있기 때문에 평일에 여가 시간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체육특기자들은 또래대학생과 친해지려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도 이러한 생활의 규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체육특기자 신입생은 또래대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김동현, 2011). 체육특기자 신입생들도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단순히 학업(또는 강의)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숙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나 만남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학적, 시간, 규율에서부터 상당한 차이를 상호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학관계자들의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학업생활과 여가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도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강의시간표 조정부터 시작하여 훈련 시간의 조정을 통해서 체육특기자들이 또래대학생과 유사한 대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2. 운동중단 특기생들을 위한 교육적 조치 필요

본 연구에서는 체육특기자 신분으로 대학생이 된 후 운동선수로서의 미래 불안으로 운동을 포기하고 학업에 전념하기를 희망하는 특기자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 체육특기자 신입생은 특기자로 대학교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학업으로 전향하더라도 농구부 단체 운동에 의 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신입생은 오후 운동과 야간 운동 후에 학업을 수행하고자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이 신입생은 타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어 전과를 시도했지만 체육특기자 입학자는 전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일부 극소수의 체육특기자 체도를 약용하여 타 전공으로 전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되지만, 이 농구특기생의 경우와 같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 전과를 희망하는 사례로 존재함으로 세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김환우, 김재은, 노미라, 2012). 예를 들면, 전과를 무조건 불허하기 보다는 조건부 조항을 만들어 전과 희망자가 어느 정도의 순수한 의지와 역량이 확인된다면 전과 등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운동중단 특기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업지원 또는 진로상담 등의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유정애, 2017). 본 연구에서 농구특기생의 경우 개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또래대학생 문화로 잘 적응하고 있지만 모든 운동중단 체육특기생이 동일한 방식으로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대학체육특기자가 속한 학과(분)에서는 운동중단 특기생들이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또래대학생을 통한 학습도우미(또는 또래멘토링)를 1:1 매칭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래대학생들은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체육특기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운동중단을 고민하는 특기생들 대상으로 스포츠진로 상담활동이 대학 내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유정애, 2017). 스포츠진로상담활동을 통해 이들의 고민 또는 갈등을 경청하고, 희망할 경우 체육진로흥미검사를 통해 체계적인 진로설계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V. 결론 및 제언

2017년 입학자부터 모든 체육특기자들은 각종 시험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C제로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학엘리트스포츠 정책변화는 우리나라 체육특기자의 대학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체육특기자의 대학생활에 대한 연구는 체육특기자들의 내면적인 목소리에 의존하여 왔지만, 이들의 대학생활을 또래대학생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C대학의 체육특기자와 강의의를 함께 수강하는 또래대학생 4명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의 대학생활을 이해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우리나라 체육특기자들은 또래대학생과 ‘보이지 않는 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체육특기자들은 강의실에서 방황하며 학업 태도와 관계없이 호화스런 학점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부 체육특기자들은 특이한 진로 변경에 대해 고민하며 자아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글에서는 체육특기자들의 학업시간과 여가시간의 확보를 위해 대학관계자의 공조가 필요하며, 동시에 입학 후 운동을 중단하는 체육특기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대학체육특기자들의 대학생활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대학엘리트체육 정책이 수립되거나 체육특기자들을 위한 정책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체육특기자 본인과 또래대학생 뿐만 아니라, 체육특기자들의 학부모와 그들을 가르치는 운동부지도자들의 관점 및 인식을 분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곽은창, 김용규, 주병하(2011).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학습 환경 실태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8(1), 1-16.
- 교육부(2017. 3. 30).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 구창모(2010). 비인기 종목 대학 운동선수의 생활양식

- 연구.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3), 1-18.
- 김동현(2011). 무엇이 그들의 학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나?: 대학교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의 문제점 및 대안. **체육과학연구**, 22(3), 2155-2171.
- 김환우, 김재은, 노미라(2012). 중도탈락한 체육특기자의 학업적응과정. **한국스포츠학회지**, 10(4), 123-134.
- 류태호, 이주욱(2004).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한국체육학회지**, 43(4), 271-282.
- 신영균(2010). 대학운동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인식과 개선 방안. **한국체육학회지**, 15(2), 161-177.
- 신현균, 이학준(2004). 대학여자운동선수들의 운동문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체육철학회지**, 12(2), 267-280.
- 유정애(2017). 우리나라 학교체육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방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5(4), 1-14.
- 이옥진(2010). 대학 축구선수의 선수생활 및 학업수행 실태와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에 관한 인식. **한국체육과학회지**, 19(3), 455-470
- 이학준(2008). 학생선수의 생활세계: 공부, 운동, 여가. **스포츠인류학연구**, 3(1), 17-34.
- 이혁기, 임수원(2010).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운동부 문화와 사회적 함의.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4), 85-105.
- 임용석, 류태호(2014). 대학교 학생선수의 수업일상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1(3), 113-140.
-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2016). 2016 KUSF 대학스포츠 운영규정. 대학스포츠 운영규정집.
-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14.12). 2014 대학스포츠 종합 운영 실태조사 연구.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
- Spradley, J.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and Winston. 이희봉 역 (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